

## 2023 경기예술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 모든예술31 】 심의평

2023년 <모든예술31>의 지원단체 선정의 주요 방향은 심의지표 중 지원예술단체의 예술성을 중점을 두고 단체의 작품성이 해당 지역에 예술적 파급력과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의 구체성, 추진가능성, 지역과의 관계성 등을 통한 지역민 향유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단체들을 배려하였습니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단체 작품의 예술적 작업을 중심으로 지역적 향유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선정 방향이 되었습니다.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전시와 작가의 기획적 방법론에 우선 순위를 두고 예술적 파급력을 주요하게 보았습니다.

문학의 경우, 기존의 작품이 단순 개인적 출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문학작품이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적 소재를 담고 있는 부분을 중점을 보았습니다.

모든 예술31의 선정시, 지역예술단체의 예술적 지역성을 기존 레파토리의 활용을 통한 예술활동에 중점 방향으로 두었기에 새롭게 창작단계 과정, 생활예술 방향, 교육적 방향의 기획은 지양하였습니다.

지원단체들의 신청내용 중 아쉬운 부분은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한 부분과 대체적으로 홍보마케팅이나 사업에 대한 모객의 고민이 없는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2023.2.23.

심의위원	송경희 (행복한상상 대표)
	이경자 (소설가)
	장현선 (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재운 (비평가, 前 PAFe 평가위원)
	신동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미래전략실장)